

- 주요 뉴스: 미국 임금 상승세 둔화, 금리인상 속도 완화 기대감 제기
 - G7,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합의. 러시아는 반발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의회에 우크라이나 및 코로나 지원자금 추가 요청
 - EU, 공급망 위기 발생시 회원국에 주요 물품 재고 확보하도록 지시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고용 감소 및 실업률 상승 영향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1%], 달러화 약세[-0.1%], 금리 하락[-6bp]
 - 주가: 미국 S&P 500 지수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 경기둔화 우려를 반영해 하락
유로 Stoxx 600 지수는 EU 회원국의 공급망 위기 공동대응 등 발언으로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차익매물 출회 등을 반영하며 약보합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는 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임금 상승세 둔화로 금리인상 완화 가능성 반영
독일은 ECB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 금리와 연동해 3bp 하락
- ※ 원/달러 1M NDF환율(1362.7원, +0.1원) 1.0% 상승, 한국 CDS 보합

		9/2일	9/1일	전일대비			9/2일	9/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24.3	3,966.9	-1.07%	국채 금리 10y	미국	3.19%	3.25%	-6bp
	유럽	415.97	407.66	2.04%		독일	1.53%	1.56%	-3bp
	중국	3,186.5	3,185.0	0.05%	CDS 5y	한국	33bp	33bp	0bp
	일본	27,651	27,661	-0.04%		중국	74bp	77bp	-3bp
	한국	2,409.4	2,415.6	-0.26%	위험 지표	EMBI+	442	441	1bp
달러지수	109.53	109.66	-0.14%	VIX		25.47	25.56	-0.35%	
유로화	0.9954	0.9946	0.08%	WTI유					
환율	엔화	140.20	140.21		0.01%		86.87	86.61	0.30%
	위안화	6.9000	6.9070		0.10%	원자재	구리	342.2	341.5
	원화	1,362.6	1,354.9	-0.57%	금	1,712.2	1,697.5	0.86%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임금 상승세 둔화, 금리인상 속도 완화 기대감 제기

- 미국 노동부, 8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가 31.5만개 증가했다고 발표. 이는 전망치 30만개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헬스케어 등에서 일자리가 확대. 단, 실업률은 구직자 증가 영향으로 전월(3.5%) 보다 높은 3.7% 기록. 시간당 평균임금은 0.3% 올라 전월(0.5%) 대비 둔화
-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증가세를 인플레이션 둔화 징후로 볼 수 있다면서,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 등을 함께 언급
- BoA의 Michael Gapen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 압력 요인 중 하나인 임금 상승세가 늦춰지고 있다면서 9월 미국 금리인상 폭이 75bp가 아닌 50bp가 될 수 있다고 전망. ING의 James Knightley 이코노미스트는 9월에는 예상대로 금리를 75bp를 올리더라도 이후 인상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라고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G7,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합의. 러시아는 반발

- G7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을 두기로 합의했다면서 해당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발표. 원유 상한가는 기술적 레인지 기반에 의해 책정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부연
- 이에 러시아는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국가들에 원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면서 시장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이들과는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

■ 러시아, 독일 가스 공급 재개 하루 앞두고 가스관 폐쇄 유지 통보

-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은 독일과 연결된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 정기 점검 과정에서 누출이 발견되었다면서 이를 통한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발표. 또한 예비 부품이 없다는 점을 언급해 중단이 장기화 될 수 있음을 시사
- 일각에서는 3일부터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단 장기화가 불가피. 한편, 앞서 독일 쉘츠 총리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위기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의회에 우크라이나 및 코로나 지원자금 추가 요청

-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117억달러와 코로나 19 지원자금 224억달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 완화를 위한 20억달러도 함께 요청하면서, 의회가 긴급 지출 패키지를 9월말 이전에 연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 EU, 공급망 위기 발생시 회원국에 주요 물품 재고 확보하도록 지시할 방침

- EU 집행위원회는 극단적인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회원국에 주요 물품의 전략적 재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수시장 위급상황 대응 체제를 마련할 방침
- 해당 재고 확보 조치는 기업이 어떤 물품을 먼저 생산해야 할지도 규정하며 이를 통해 코로나 백신, 마스크, 반도체 등 공급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 프랑스, 금년 겨울까지 원자력발전소 모두 재가동 계획

-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가동을 중단한 32기의 원전을 겨울까지 모두 재가동할 것이며 월동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표. 한편, 프랑스는 세계 2위 원전 보유국으로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 중

■ 전문가들, ECB 9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에 무게

- 금융투자업계에서 유럽중앙은행이 9월 75bp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 확대. OFI Asset Management는 ECB가 채권 보유자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9월 사상 처음으로 75bp 인상에 나설 것으로 분석. 독일 Commerzbank 역시 이달 금리를 75bp 올리고 다음달에도 50bp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신규공장수주(전월비): -1.0%, 6월(2.0%) 예상치(0.2%)
- 독일 7월 수출(전월비): -2.1%, 6월(4.5%) 예상치(-2.2%)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31, E-mail jgbaek@kcif.or.kr